

‘불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역대 두 번째로 높아

(149점)

2022 수능 채점 결과 발표

국어 만점자 28명으로 줄어들어 수학 최고점 147점 ‘10점 상승’ 이과생들 문과 교차지원 많을듯

지난달 18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년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후 제기됐던 ‘불수능’ 논란이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강태중 원장과 이규민 수능채점위원장(연세대 교수)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을 보면 국어 149점, 수학은 147점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어는 5점 상승했고, 수학은 수학 가형·나형보다 10점 상승했다. 표준점수는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는 점수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문제가 어려우면 높게 나타나는데 올해 국어와 수학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어는 출제위원단과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 차이가 매우 컸다. 당초 평가원은 “예년의 출제 기준을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으나, 올해 국어는 어렵다고 평가받는 지난해 국어보다도 더 어렵고,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현 수능체제가 도입된 2005년 이래 2019학년도(15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어에서 만점자 수가 28명(표준점수 149점)으로 지난해 151명보다 크게 줄었다. 수학 만점자 인원은 2702명(표준점수 147점)이었다. 지난해 수학 가형 만점자는 971명, 수학 나형 만점자가 1427명이었다.

영역별 1등급 컷트라인(컷)은 국어 131점, 수학 137점이었다. 지난해 국어 1등급 컷이 131점, 수학 가형은 130점, 수학 나형은 131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어는 똑같고 수학은 가형보다 7점, 수 나형보다 6점 상승했다.



남구의 밤, 예술 속으로 9일 오후 광주시 남구청사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지고 있다. 미디어 파사드는 매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남구의 유서깊은 장소나 전설 등을 화려한 빛으로 구현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은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6.25%(2만7830명)로 지난해 12.66%(5만3053명)보다 반절이나 줄었다. 다만 2등급 인원이 9만6441명으로 지난해 6만9051명보다 2만7390명 증가해 수시에서 수능최저등급의 영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수능 여파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늘면서 수시 이월 인원 증가도 예상된다. 수시 이월 인원이 늘면 정시 선발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이월 인원을 반영한 최종 모집인원을 확인한 뒤 지원하라고 조언했다. 전체적으로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과목별 반영 비율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표준점수 총합이 비슷해도 잘 본 과목에 따라 지원 전략을 다르게 짜는 게 유리한데, 특히 국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국어 성적 반영 비율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처음 문·이과 구분 없이 치른 수학 역시 변수다. 수학 반영비율은 대학·학과별로 차이가 크다. 대체로 인문계열 학과는 국·영·수 성적을 비슷하게 반영하지만, 상경계열은 40% 이상 높게 반영하는 추세다. 이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이과의 수학 격차가 커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 지원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수학에서 선택과목 간 격차는 굉장히 큰 속제로 남았다”고 진단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조선대 방역패스 도입... 12일까지 제도기간

도서관 열람실·박물관·미술관·식당·카페 등 집중완료 확인

조선대학교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 수치를 기록하자 교내 시설 이용에 대해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강력한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했다. 조선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은 지난 8일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건물 출입 방역 강화와 방역패스 시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선대는 교내시설인 ▲중앙도서관 ▲식당 ▲가

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평생교육원 및 교육학원 포함) ▲조선대학교 박물관 ▲조선대학교 미술관 및 김보현미술관 ▲역사관 ▲스터디실 등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완료자 확인)를 도입한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출입자에 대해 접종 완료를 확인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출입과 이용이 금지된다. 접종완료 확인은 접종완료

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한다. 방역 강화 조치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제도기간이 부여된다. 추가 조치로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 8인 이상 금지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에 따른 발열체크 업무 수행 ▲불요불급한 모임과 외출 자제 요청 문자 발송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한 수업조치도 시행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퇴원 또는 치료 후 1주

동안의 격리기간이 적용된다. 대면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며 담당교원의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강, 대강, 담당교원 변경 등으로 조치한다. 대면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공결처리 된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음성판정 후 10일 간의 자가격리 및 수동감시 기간이 적용된다. 대면수업의 담당 교원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며, 학생의 경우 공결처리 된다. 민영돈 총장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확산 억제를 위해 우리 대학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참여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학생과 교원, 교직원,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 ‘노예 PC방’ 청년 산업재해 인정 받아

근로복지공단 사업주의 상습적인 폭행 시달린 PC방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9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30일 A(25)씨 등 6명에 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화순의 한 PC방 사장 B씨로부터 감금과 학대, 폭행, 그 밖의 정신·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당했으며 이로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A씨 등이 B씨의 가학적인 행위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두려움과 공포감이 기증돼, 불안감에 의한 반복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됐다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 교육 포럼

전남대 5·18연구소 오늘 전남대학교가 10일 오전 10시 학내 ‘G&R Hub’ 세미나실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5·18 교육포럼’을 개최한다. 전남대 5·18연구소와 광주시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저항의 도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전망을 모색한다. ‘포럼 1’ 세션에서는 ‘국가폭력과 평화, 그리고 인권’이란 주제 아래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과 민주시민교육(김성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노년 리교육프로그램(고성우, (사)노년리국제평화재단) ▲4·3 평화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조정희, 제주4·3평화재단)가 발표된다. ‘2세션’에서는 ‘공동체와 시민참여’라는 주제 아래, ▲5월 역사와 사람을 잇는 다리, 5·18 기념재단 교육사업(박재용, 5·18기념재단) ▲부산민주공원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사례(김신아, 부산민주공원) ▲단원급 4·16기억교실: 걸으며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길(이지성, 4·16기억저장소)이 발표된다. ‘3세션’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과 교육적 연대’를 논의한다. 학술대회는 전남대 5·18연구소 공식 유튜브(<https://youtu.be/130SKfdeNes>)로 생중계되며, 현장 참여는 5·18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해야 한다. /채희종 기자 chae@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쉬운 교육 남원에서 만나다 | 남원시 | 남원에촌 |

|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 | 서도역 옛 기차길 |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